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광주 15/26℃ 목포 16/24℃ 여수 18/25℃

2013학년도 수시1차 모집
원서접수 : 2012. 8. 16(목)~10. 9(화)
고구려대학교
입학상담 : 080-330-7300

단기 4345년 (음력 8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322호 1판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안철수 "단일화 논의 지금은 부적절"

대선출마 선언 "국민의 정치쇄신 열망 실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따라, 초반 대선 구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등 3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18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게 됐다

안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국민은 저를 통해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줬다"며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 열망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저와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라며 "저급한 흑색선전과 이전투구를 계속하면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선의의 정책 경쟁을 선언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각의 정치경험 부족 우려에 대해 "정치경험도, 조직도,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다"며 "국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이 두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민이 동의할 수준의 민주당 쇄신이 우선 돼야하며 과거 DJP 연대나 노무현-정몽준 연대처럼 철학의 공유 없는 정치공학적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 안 원장은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힘든 고뇌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는 자신이 가진 정확한 생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이 정책 경쟁을 제안하고 과거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 역사 인식과 각종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안랩'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 안 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머지 지분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끝내 골프장만… 광주시 先개장 수용

어등산 개발 특혜시비 계속될 듯

광주시가 특혜 논란을 빚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골프장 선(先) 개장을 허용하는' 법원의 강제조종 결정안을 끝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의 편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비난과 함께 향후 유원지 개발 사업 시행시 명품아웃렛 부지 분양 등에 따른 또 다른 특혜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 이병록 행정부시장은 19일 "민간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소송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의 건의를 반영해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광주시에 기부채납될 유원지 부지의 개발계획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수립하겠으며, 호텔 부지는 1만 평 수준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주)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273만㎡ 가운데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 117만6000㎡(35만6000평)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수익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하게 된다.

광주시가 떠안게 된 유원지 조성사업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공영개발에 따른 재정부담은 최근 신세계의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측에서 4만 평의 부지를 600억원대에 매입해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주)어등산리조트측도 빠르면 오는 10월께 골프장을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애초 계획은 사라지고, 돈 되는 사업인 골프장과 명품 아웃렛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원칙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사업자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포기한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사업 등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발부지 분양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 사업이 자칫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알림

호남학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호남 기록문화 학술 심포지엄

광주일보사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과 공동으로 호남 권역의 기록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호남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대현(전남대) 교수가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업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합니다.

또 한민호(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박광석(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한예원(조선대 한문학과 교수),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9월25일 오후 3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주최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일보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헌법재판관 5인 오늘 취임

공석사태 14개월만에 9인체제 정상화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인선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결원 없는 '9인 체제'를 갖춰 운영되게 됐다. 이로써 헌재가 그동안 국회에 줄기차게 해소할 것을 요구했던 '위헌적 상황'도 해결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고 나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년2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여기에 지난 14일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가운데 곧바로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9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김이수(59·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10기), 김창종(55·12기), 강일원(53·13기), 안창호(55·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취임식을 하고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후보자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받음으로써 인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신임 재판관들의 업무 개시와 함께 그동안 지연됐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급법 위헌 심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 원서접수 : 11. 12(월) ~ 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 원서접수 : 11. 12(월) ~ 30(금)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